



KEB하나은행, 카사코리아와 '부동산 간접투자 플랫폼' 맞손
KEB하나은행은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인 카사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본격적인 업무제휴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서 한준성 KEB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왼쪽 첫번째)과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담당장(오른쪽 첫번째), 예창환 카사코리아 대표이사(가운데)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 비상장 주식 투자자에 리서치 정보 제공
하나금융투자는 6일 오전 코스콤,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KEB하나은행, (재)대전테크노파크, (주)아미쿠스렉스와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비상장주식마켓 플랫폼(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준배 (사)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정지석 코스콤 사장, 한준성 KEB하나은행 부행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정진숙 아미쿠스렉스 사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하나금융투자



금투협·금융협회, 청소년 금융캠프 발대식
금융투자협회와 5개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전국에서 모인 120명의 중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청소년 금융캠프 '나는야 금융맨'의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이번 캠프는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의도의 금융투자교육원과 경기 화성의 YBM연수원에서 진행된다. /금융투자협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타이어세이프 어워드 수상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영국 타이어 안전 관련 단체 '타이어세이프'가 수여하는 '2019 타이어세이프 어워드'를 수상했다. 6일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에 따르면 타이어세이프 어워드는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타이어 안전 관련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인사

◆**소비자경제** △마케팅사업국장 이영표 △산업부장 이한

부음

▲홍준우씨 별세, 홍사경(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씨 부친상 = 5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 발인 8일 오전 6시. ☎ 02-2258-5946
▲김정신씨 별세, 백종철(서초구청 과장)·백종학(자영업)·백인선씨 모친상, 김란수(송파구청 과장)·김해성씨 시모상, 정석영(우리금융지주 상무)씨 장모상 = 6일 오전 4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서

울추모공원. ☎ 02-3410-6915
▲강석근(전 서초구청장·전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장)씨 별세, 강홍구(㈜SHI 이사)·강유정·강형구(㈜인플루엔셜 이사)씨 부친상, 고승용(㈜이큐포울 대표이사)씨 장인상 = 6일 오전 6시54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8일 오전 5시, 장지 용인공원. ☎ 02-3010-2292
▲이강재(수원샘물교회 협동목사)씨 별세, 황석희(전 평화은행장·국제키비탄 한국본부 총재)씨 부친상, 황용식(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황경희(㈜드림미즈 근무)씨 모친상, 김은정(헬리스트)씨 시모상 = 6일 오전 5시2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8일. ☎ 02-2227-7547

앞니를 상실했다면?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사고나 외상, 노화로 인해 앞니를 상실하게 되면 보통 브릿지 치료나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지금처럼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주로 브릿지를 통해 앞니를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브릿지는 치아의 주변치아를 다듬은 뒤 연결된 보철을 이용해 상실된 치아를 보강하는 시술로 임플란트에 비해 치료 비용이 저렴하고 시술방법도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브릿지의 경우 멀쩡한 치아를 깎아야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실된 치아 부위의 잇몸 퇴축으로 잇몸 뼈가 움푹 꺼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앞니 보다는 어금니 치료에 더 적합한 치료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니는 어금니와 달리 말을 하거나 웃을 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심미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데 심

미성과 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싶다면 처음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니 임플란트에 최적화된 '노벨 가이드 임플란트'는 긴 치료기간이나 잇몸절개에 대한 부담을 줄인 치료방법으로 일명 '한 시간 임플란트'로도 유명하다.

노벨 가이드 임플란트는 세계 최초의 임플란트 회사인 노벨 바이오케어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임플란트가 이식될 위치를 치과 전용CT(컴퓨터 단층촬영기)로 촬영한 후 컴퓨터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인공치아를 심을 수 있도록 한 시술법이다.

무엇보다 잇몸수술부터 최종 보철물을 심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이미 유럽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의 혁명'이라 불리고 있으며,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당뇨·무치악·고혈압 환자 및 고령자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다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잇몸뼈(치조골)가 충분하고 상태가 양호하다면 수술 직후 미리 만들어 둔 영구 보철물을 즉시 결합시키면 되지만 잇몸뼈가

충분치 않거나 많이 손상되었다면 '잇몸뼈이식술'을 먼저 시행해야 실패 요인이 줄어든다.

시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차원 CT촬영을 통해 임플란트가 이식될 부분의 잇몸뼈 상태와 위치,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치과 전용CT기계를 사용해야 보다 정밀하고 성공적인 시술이 가능하다.

이처럼 임플란트는 시술과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 등이 끼지 않도록 항상 구강상태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잦은 음주나 흡연은 임플란트 주위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또한 6개월~1년에 한 번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이 꾸준히 관리해줄 수 있는 치과병원인지, 담당의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치과전문인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신태운 민들레치과 원장

NH농협銀, 어르신 안전한 소비생활 돕는다

소비자원과 가이드 웹툰 공동제작 전국 영업점, 관련기관 등에 배포



NH농협은행 서윤성 금융소비자부문 부행장(오른쪽)과 한국소비자원 이득연 안전센터소장이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제작 및 배포 간담회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한국소비자원과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 웹툰을 공동 제작해 전국 영업점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소비생활가이드'는 어르신들이 취약한 사고사례를 선정해 유의사항을 웹툰으로 제작했다. 사고사례는 ▲낙상사고 ▲의약품 오남용 ▲안약 오인 점안사고 ▲건강기능식품 ▲임플란트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주의사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이다.

양기관은 소비생활가이드를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공식 SNS 등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할 계획이

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윤성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은 "생활·금융 분야 안전정보를 수록한 가이드를 웹툰으로 제작했다"며 "어르신을 위한 안전

한 소비생활가이드'가 어르신들의 안전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GS더프레시, 수협과 손잡고 수산물 소비촉진 앞장

수협중앙회와 MOU 3주년 기념해 수산물 50톤 이상 준비, 40% 할인



GS THE FRESH 강남대치점에서 수산담당자와 직원이 함께 미소짓고 있다. /GS리테일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더프레시(GS THE FRESH)는 수산물·건어물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GS더프레시는 7~13일 생물 고등어 2마리에 3980원, 국물용멸치 1.5kg에 9900원, 굴비 1.3kg 20미두릅을 2만 9800원에 판매한다.

GS더프레시는 고등어 등 인기 상품에 대해 50톤 이상의 물량을 준비하고 국내 최저가를 목표로 기존 대비 4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번 할인 행사는 GS리테일과 수협

부산 고등어, 남해안 멸치, 참굴비 등 다양한 국내 산지의 우수한 상품을 수협과 공동 소싱해 할인 판매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거두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GS더프레시는 2017년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 후,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대량 매입하며 매년 전년 대비 20%가 넘는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재혁 GS리테일 수산팀 팀장은 "앞으로도 수협중앙회와 주요 수산물의 취급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